논문 2010-1-18

가족형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권미란*, 윤치웅**

Mi-Ran Kwon, Chywoong Yoon

요 약 본 연구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그리고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형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부(-)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부적응 행동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가족의 형태와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부적응행동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요인이 가족형태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is study prac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s of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ladjusted behaviors according to family types and in particular, made a practical analysis about whether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ladjusted behaviors have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types and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family types w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Family typ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As for interpersonal relations, family types were significant as a positive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maladjusted behaviors were proved that they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amily types like the Internet addiction. That is to say, even the mediation effects that family types through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ladjusted behaviors related to Internet addition were verified.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ladjusted behavior factors play mediator roles between family types and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가족형태,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부적응 행동

Ⅰ. 서 론

가정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소속되어지는 공동체이며 최초의 교육의 장이다.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초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정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정의 붕괴 원인은 이혼, 가출, 별거, 사망 등으

*정회원, 나사렛대학교
**정회원, 한세대학교
접수일자 2010.1.28, 수정일자 2010.2.25

로 구조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와 실직, 부도, 생활무능력, 불성실, 무책임, 생활고 등으로 기능적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은 자녀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형성과 인격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아 형성이나 인격 형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 수는 1,471만 명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82만 명, 이용률은 76.3%로 나타났다.[1]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더욱 심각한 경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2]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터넷의 부작용적인 측면에 노출될 위험성과 그 위험의 지속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를 전제로 하여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의 긍정적인 사용 태도를 증진시켜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인간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청소년들은 특히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라는 가정환경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사회 부적응 행동과 대인관계가 결손가정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II. 관 련 연 구

전통적인 가정은 성이 다른 두 사람의 성인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고 상호간에 동일한 목표를 지니는 사회적 체계로 정의된다.[3] 결손가정이란 편부모 가정, 이혼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해체가족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부모 중 한쪽만 존재하는 편부·편모 가정뿐만 아니라 양부모 결손가정을 포함한다. 가정은 구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가치를 전제로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은 구조적 측면의 결함이나 기능적 측면의 결함을 의미한다.

결손가정의 원인이 과거에는 주로 부모의 사망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별거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취업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들과의 별거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형태적 결손가정과 양친이 다 있더라도 양친의 불화, 갈등, 방임, 가정의 부도덕 등의 원인으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이 존재하게 되었다.[4]

이들 다양한 결손가정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다.[5] 첫째,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결손인 가정이 있다. 둘째, 형태적으로는 정상 가정이나 기능적으로 결손가정이 있다. 셋째, 형태상으로는 결손가정이지만 실제로나 기능적으로는 정상가정인 경우이다. 우리는 흔히 결손가정하면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형태상으로는 결손가정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상 가정의 기능보다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는 가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손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특성만으로도 과도기적이고 불안한 시기인데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가정의 결손은 이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가치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심리의 특성이다.[6] Rosenberg(1989)[7]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해 자신이 지각한 자아 개념에 대한 태도 및 정의적 반응으로 보고 자기 자신

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간관계(human relation)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별된다[8]

Schutz(1958)[9]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소속, 통제, 애정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욕구들은 아동기 동안에 성인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10] 즉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 가정, 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환경과의 부조화, 불균형 상태에 빠짐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Lazarus(1981)[11]는 적응을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Grossman(1977)[12]은 개인의 사회적응을 일생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성영혜(1992)[13]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 인터넷 중독의 시발은 199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Goldberg(1996)[14]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이라 일컫고 인터넷 상에 인터넷 중독자 지지 그룹 (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의 설립을 천명한 것에서 비롯된다.

Mark Griffiths(1996)[15]는 중독을 약물 의존 외에 다양한 행동에서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의 의하면 인간이 중독되는 것은 두 가지로 약물 중독과 행동적 중독이 있으며, 인터넷 중동은 행동적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Young 교수는 수많은 인터넷 중독자들과의 면접과 심리치료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이 가상공간의 비현실적인 관계로 인하여 가정파탄을 초래하고, 억제할 수 없는 사용은 학업문제를 일으키며, 또한 업무시간의 인터넷 사용으로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를 일으켜 퇴직까지도 당하게 하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6]

Ⅲ.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앞에서 제시한 결손가정,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부적응 행동, 대인관계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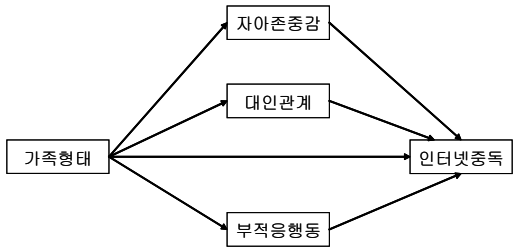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의 형태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가족의 형태는 대인관계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가족의 형태는 부적응 행동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경기 지역과 충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0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13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Properties of Sample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13	68.1
	여자	100	31.9
연령	15	29	9.3
	16	101	32.3
	17	82	26.2
	18	94	30.0
	19	7	2.2
성적	상	51	16.3
	중	175	55.9
	하	87	27.8
가족형태	모	36	11.5
	조부모	4	1.3
	형제자매	7	2.2
	친척	2	0.6
	기타	2	0.6
인터넷 이용시간	30분 이내	22	7.0
	1시간 정도	76	24.3
	2시간 정도	120	38.3
	3시간 이상	61	19.5
	거의 사용하지 않음	34	10.9
인터넷 주 활동	게임	124	39.6
	채팅	9	2.9
	메일 및 메신저	78	24.9
	동영상 감상	17	5.4
	정보 및 자료검색	45	14.4
	기타	40	12.8

측정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요인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항목들이 일차적으로 제거되었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차원에 적합 시키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가족의 형태는 명목척도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그리고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각 요인별 적재량이 0.5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으며, 그 중에 다른 요인에 대한 적재량의 차이가 뚜렷하지 못한 요인은 제거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가족의 형태는 명목척도이므로 회귀분석을 하기 위하여 가족의 형태를 더미변수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족의 형태, 즉 일반가정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즉 가족의 형태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eta 값이 음수로 나타나 일반가정일 경우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18.5%로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가족형태와 인터넷 중독간의 회귀분석
Table 3. Regression of Types of Family and Internet Addiction

종속변수	Beta (회귀계수)	t (통계량)	sig (유의확률)	adjusted R^2: (수정된 결정계수)
인터넷 중독	-0.668	-8.416	0.000	R^2: 0.185 Adj.R^2: 0.183

가족의 형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족의 형태, 즉 일반가정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즉 가족의 형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eta 값이 양수로 나타나 일반가정일 경우 자아존중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4.5%로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가족형태와 자아존중감간의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of Types of Family and Self-respect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자아 존중감	0.323	3.829	0.000	R^2: 0.045 Adj.R^2: 0.042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가설 3과 가설 4도 채택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가족형태와 대인관계간의 회귀분석
Table 5. Regression of Types of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대인관계	0.172	2.253	0.025	R^2: 0.016 Adj.R^2: 0.013

표 6. 가족형태와 부적응 행동간의 회귀분석
Table 6. Regression of Types of Family and Maladjusted Actions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부적응 행동	-0.456	-6.443	0.000	R^2: 0.118 Adj.R^2: 0.115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17]의 연구에 기초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의 회귀계수가 독립,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의 회귀계수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형태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회귀분석
Table 7. Intermediate Effects Regression of Self-respect

변수	독립→매개		독립→종속		독립 매개 →종속		매개 효과
	beta	t	beta	t	beta	t	
가족형태	0.323***	3.829	-0.668***	-8.416	-0.611***	-7.651	채택
					-0.175***	-3.325	

* p<0.1, ** p<0.05 *** p<0.01 (유의확률 *0.1, ** 0.05 *** 0.01)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매개 효과 회귀분석을 결과는 가설 6과 가설 7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 회귀분석
Table 8. Intermediate Effects Regression of Personal Relations

변수	독립→매개		독립→종속		독립 매개	→종속	매개 효과
	beta	t	beta	t	beta	t	
가족형태	0.172**	2.253	-0.668***	-8.416	-0.649***	-8.150	채택
					-0.105*	-1.791	

* p<0.1, ** p<0.05 *** p<0.01

표 9. 부적응 행동의 매개 효과 회귀분석
Table 9. Intermediate Effects Regression of Maladjusted Actions

변수	독립→매개		독립→종속		독립 매개	→종속	매개 효과
	beta	t	beta	t	beta	t	
가족형태	-0.456***	-6.443	-0.668***	-8.416	-0.565***	-6.822	채택
					2.224***	3.591	

* p<0.1, ** p<0.05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그리고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형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경기 지역과 충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0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13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부(-)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일반가정일 경우 결손가정인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적응 행동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가족의 형태와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나 부적응행동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요인이 가족형태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모집단의 대한 표본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족의 형태를 결손가정과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형태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모두 표현해 주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과거에 결손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참 고 문 헌

[1]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 백서,” 2008.

[2] 박신희,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3]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7

[4]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5] 임철완, “결손가정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6] Harter, S,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D. Yawkey & J.E. Johonson(eds.), Integrative proces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1993

[7] Rosenberg, M., Schooler, C. and Schoenbach, C,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6, pp. 1004-1018,.1989

[8] 한광희,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9] Schutz, H. S, FIRO: A three 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nehart & Company. Inc,.1958

[10] 강봉규, "교육심리학", 형성출판사, 1992

[11] Lazarus, D, "Physicla Punishment of children and wife beat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Vol.5, No.2, pp. 193-195, 1981

[12] Grossman, H. J, Manual 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Washington, D. 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1977

[13] 성영혜,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14] Goldberg,(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85,http://www1.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15] Griffiths, M,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1996

[16] Young, K. 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1996

[17] Baron, R. M. and Kenny, D,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 51,.1986

저자 소개

권 미 란(정회원)

- 1980년 수도여자사범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82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전공 (교육학 석사)
- 1986년 미국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대학원 졸업, 유아교육학 전공(문학 석사)
- 1987년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수학
- 1991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2009년 한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IT학부 (공학박사)
- 1997년~현재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주관심 분야 : 아동발달, 유아음악,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윤 치 웅(정회원)

- 1998년 경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2001년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과 (정보관리학석사)
- 2004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 2009년 한세대학교 IT학부 (공학박사)

<주관심분야 : 인터넷,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중독, 신뢰, 정보보호>